

2019년 제2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개최 결과

□ 세미나 개요

- (주제) 전자기록 장기보존 정책 및 보존포맷 재설계 방향
 - 사회 : 김형국 과장(국가기록원)
 - 발표 : 이지영 연구사(국가기록원)
 - 토론 : 임진희 과장(서울시청), 양동민 교수(전북대), 도경화 교수(건국대)
- (일시/장소) '19. 3. 27.(수) 15:00~17:00 / 정부대전청사 2동 205호 중회의실
- (참석) 총 96명
 - 내부 : 원장, 기록정책부장, 부서장, 원내 직원 등 42명
 - 외부 : 토론자, 각급 기관 기록물 담당자 등 54명

* 공공기관(27명), 교육청(9명), 중앙행정(9명), 대학원생(5명), 대학교(3명), 지방행정(1명)

□ 추진 성과

- 원내 직원 이외 기록관리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참여계층의 확대
 - 기관 공문 발송 및 우리 원 홈페이지(기록관리혁신게시판) 안내를 통한 사전 홍보로 연구세미나에 대한 외부 기관 및 대학원생의 관심 증폭
- 학계·관계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정 토론으로 심도 있는 논의 개진

□ 주요 논의 내용

- 장기보존 정책의 목적, 대상, 방향, 원칙, 전략 등 정책 방향성
- 보존포맷과 장기보존패키지의 유형별 선정기준 및 보존포맷(안)
- 전자기록 용어와 개념의 명확성 여부, 기록의 신뢰성·무결성 인증방식, 기관의 재량권 부여 및 기준 마련, 검증지원체계 의미 및 방식 등

□ 향후 계획

- 제3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개최(대전청사 2동 207호) : '19. 4. 10.
※ 기록관리기관의 BRM '단위과제' 관리 권한 확보 방안(지원기준과 황정원 연구사)

붙임

2019년 제2차 기록관리 연구세미나 모습

